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정책

행정안전부 시설사무관 이민규

발표순서

1. 재난에 대한 이해
2. 2020년 풍수해 인명피해 사례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4.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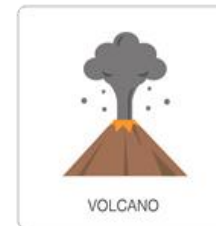
1. 재난에 대한 이해

1. 재난에 대한 이해

○ 재난(disaster)이란?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재난안전법)
※ 재앙, 재해, 위기, 위험, 위난
- 광범위한 인적·물적·경제적·환경적 피해로 인한 공동체나 사회기능의 심각한 붕괴 현상(UN-DRR*)
* Disaster Risk Reduction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의 목적
 -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 보존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1. 재난에 대한 이해

○ 재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고대/중세

신의 영역으로 인식

- 재난은 신의 벌 ⇨ 신에 대한 기도로 대응
- 묵시록적인 공포의 대상



18~
20C 초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국가구호 발전

- 재난을 유발하는 자연현상과 기술적 한계에 대한 연구
- 국가의 구호 체계 발전과 도시안전의 중요성 부각



20C 중~

인간사회의 취약성에 대한 관심

-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재난보험의 등장
- 재난관리 전문기관의 등장 (FEMA, 1979)



현대사회

신종.복합재난이 등장하는
위험사회에서 요구되는
재난대응은?

1. 재난에 대한 이해

○ 고대/중세 : 재난은 신의 행위라고 인식



<노아 대홍수>
BC 2800년경 발생

<로마 대화재>
고대서기 64년 발생
약 3만~10만명의 사상자 발생

<흑사병 창궐>
중세유럽에서 발생
2500만명~6000만명 사망

고대/중세사회의 재난에 대한 인식

• 재난은 신이 내리는 벌이므로 기도만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창세기)

* 하지만, 고대/중세부터 국가는 최소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한 행위 시작

2. 재난에 대한 대응

○ 근대 재난관리 개념의 탄생 : 리스본 대지진(1755)



리스본 대지진 해일 모습

리스본 대지진 화재 모습

■ 칸디드를 저술한 '볼테르'

“만약 불행의 시작이 신의 권위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이라면, 나는 신을 믿지 않겠다.”

- 재난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재난관리 개념 탄생
- 재난의 원인이 되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진행
- 근대적 재난피해 조사 실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재건 탄생(폼발 후작)

2. 재난에 대한 대응

○ 근대 재난관리 : 국가 구호제도의 발전(18C ~ 20C 초기)



1803년, 포츠머스, 뉴햄프셔 대화재

- 미국 최초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 정부의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등장



1927년, 미국 미시시피강 하류 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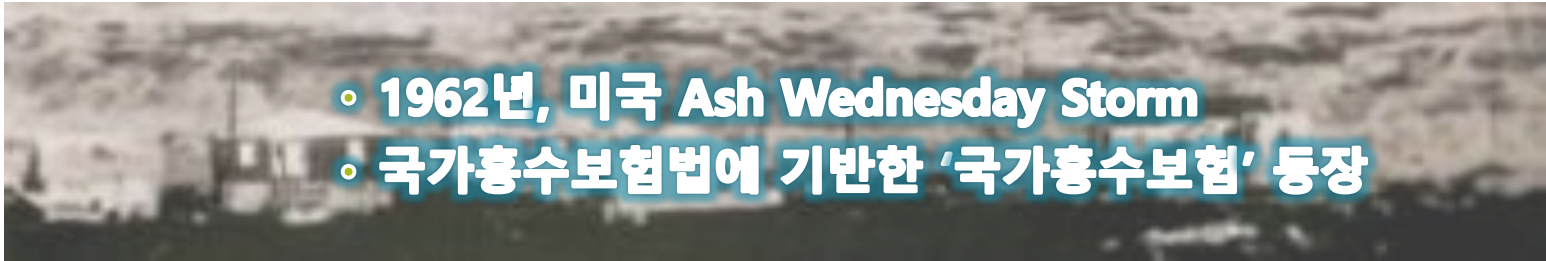
- 1905년 공식구호 기관으로 지정된 적십자사에서 구호활동 본격 전개

-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복구와 피해자 구호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집중
- 태풍·지진 등 자연현상과 시설안전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한 예방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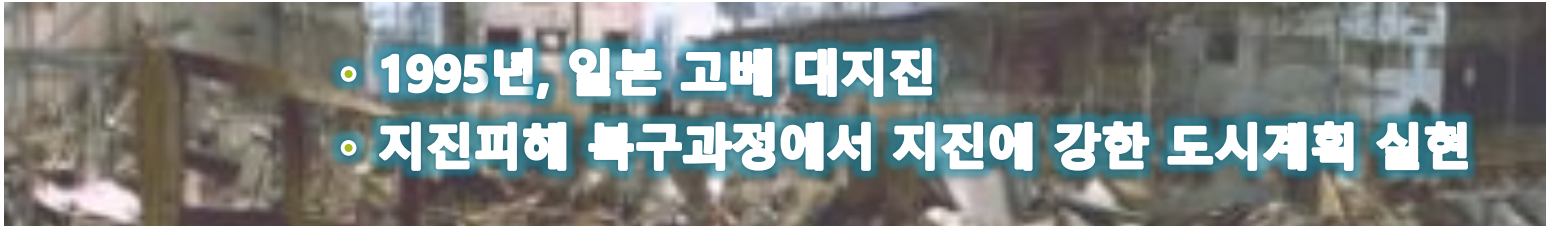
2. 재난에 대한 대응

○ 근대 재난관리 : 사회 문제로 인식(20C 중반 이후)

- 재난과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 시작
 - “외부에서 아무리 강한 위협이 오더라도 사회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다. (1932년)
- 사회 전반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보험제도의 발전

- 
- 1962년, 미국 Ash Wednesday Storm
 - 국가홍수보험법에 기반한 '국가홍수보험' 등장

-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 
-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 지진피해 복구과정에서 지진에 강한 도시계획 실현

2. 재난에 대한 대응

○ 현대사회 : 신종·복합재난의 발생

복합재난의 발생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 자연현상이 유발한 사회재난

사회·경제적 영향



태국 대홍수(2011)

태국 대홍수로 인한
반도체 공장 침수

☞ 아시아 컴퓨터 산업에 영향

신종 재난의 증가



구제역(2010), 코로나19

구제역, 코로나19 등
신종재난의 발생

☞ 국경이 무의미한 신종 재난

2. 재난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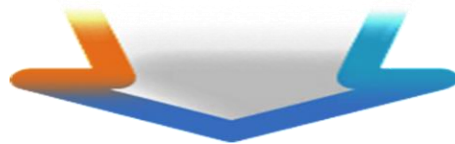
자연·사회재난 구분이 어려운 복합재난 증가



코로나 19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상재해 빈발



민간 방재 기능 강화를 통한 초기 대응 역량 제고

2. 2020년 풍수해 인명피해 사례

2. 2020년 풍수해 인명피해 사례

위치	OO시군구 OO읍면동	발생일시	2020.08.02. 12:10
강우량	일강우량: 77mm, 최대강우강도 28mm/hr	인명피해	사망 3



2. 2020년 풍수해 인명피해 사례

위치	00시군구 00읍면동	발생일시	2020.08.02. 08:30
강우량	일강우량: 219.5mm, 최대강우강도 44.5mm/hr	인명피해	사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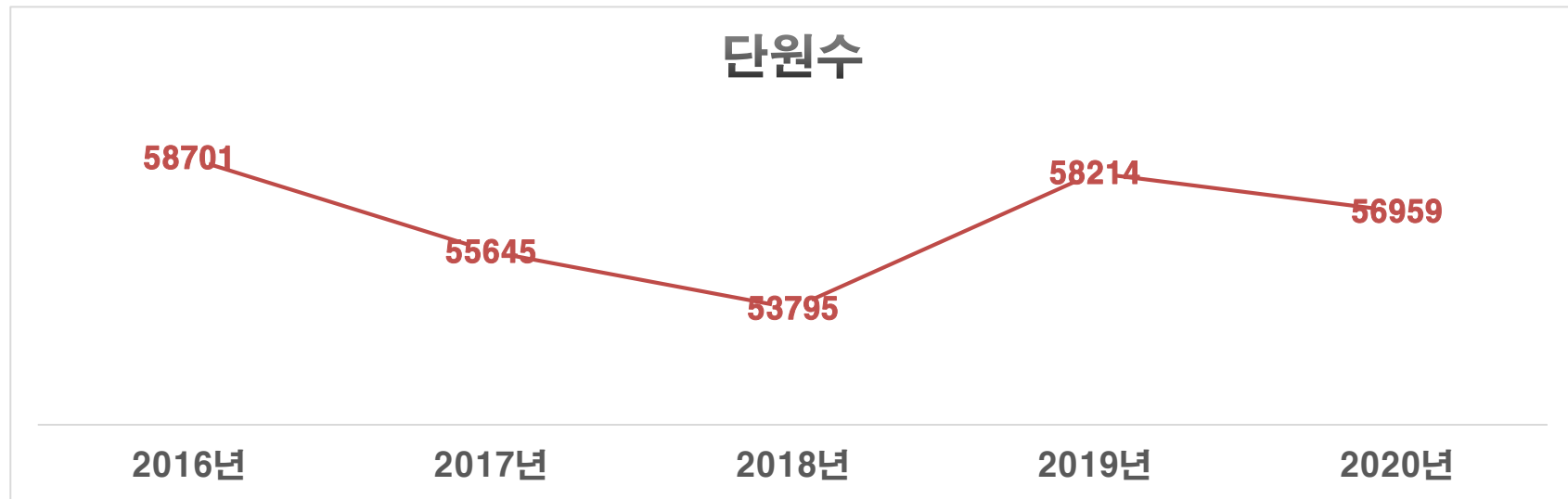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방재단 구성

- (단원수) '20년에는 '19년 대비 감소(1,255명)했으며, '13년 이후 5만명대에서 정체



- (편차) 지역별 단원수 편차가 크고 단원수가 100명 미만인 지자체(33개)가 있음
- (구성단위) 시군구 단위로 조직, 읍면동 단위 조직 34%(3,487개 중 1,184개, '20.10월)
- (단원관리) 단원의 연령·지역·활동이력, 가용장비 등에 대한 정보 부족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방재단 운영

- (운영편차) 특성이 유사한 지역간 활동실적 등에 차이가 있음
 - * 00시 00구: 180명, 활동 연인원 60명 / 00시 00구: 117명, 활동 연인원 : 767명
- (계획관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로부터 연간 계획을 받고 있지만, 시군구 단위 방재단의 계획 수립·이행 여부 등 관리 부족
- (단순활동)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영역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 업무 불명확
 - * (서귀포) 방재단장이 지역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필요 물자 등 의견제출
- (인지도) 위험한 재난현장 활동에도 홍보가 부족하여 인지도가 낮음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재난안전교육

- (교육과정) 직무능력교육, 전문교육, 자체교육 등을 시행 중이나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참여 횟수·인원('20년 12,799명) 등이 미흡

지역자율방재단 교육과정

- ▶(직무능력교육) 방재단의 역할, 생활속 안전사고 예방 등 연 1회 전국 권역별 교육('20년, 595명)
- ▶(전문교육) 응급처치, 방역, 구호 등 지정된 기관에서 전문자격 취득('20년, 245명 이수)
- ▶(자체교육·훈련) 교통통제, 폭설대응, 산불대응 등 방재단,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육·훈련

- (담당공무원 교육 부재) 방재단의 소집, 투입, 활동지원 등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담당공무원 대상 체계적인 교육과정 부족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법령·제도

- (법정근거) 활동 분석 결과, 자연사회재난 구분없이 활동하고 있어 방재 활동 범위 확대 등을 위해 개별법 제정 필요
- (활동지원) 전문활동 및 위험성 동반에 대한 정당한 수당 지급이 미흡하며, 사무실 등 방재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부족
 - * 경비(교통비, 식비 등)는 지급하나, 재난안전활동 소집에 대한 수당 미지급
 - ** 자비로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관공서 지하, 주차장 등에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
- (현장운영) 자율방재단의 역할 및 임무 규정 미흡
 - * 지역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행동매뉴얼 등에 자원봉사자와 구분없이 역할 명시

4. 2021년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정책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조직 구성 구성

- **(단원확충)** 도시·비도시, 지역 재난 특성 등을 고려, 적정인력을 산출하여 시군구별 목표 설정 및 단원 확대 추진
 - * ('20.12월) 56,959명 → ('21.5월) 62,568명으로 증가
- **(읍면동 구성 확대)** 단원 추가 확보 및 대표 등 임원진 구성
 - * ('20.12월) 1,184개 읍면동에 구성 → ('21.5월) 3,491개로 전체 읍면동에 구성
- **(단원정보 관리)** 방재단원 연락처 현행화 및 재해우려지역 현장관리관 지정 확대
 - * (연락처 현행화) 62,568명 중 47,524명(76%) 연락처 현행화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완료
 - ** (현장관리관 지정) 총 6,524개 재해우려지역(1개소당 1명) 중 4,122개 재해우려지역(63%)에 방재단원을 현장관리관으로 지정
 - *** (시스템 등록) 유사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 방재단원 3,564명 풍수해관리시스템 등록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방재단 운영 활성화

- **(맞춤형 업무 개발)** 재난유형별(자연·사회), 재난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지역별(도시·농촌·도농복합) 우수 활동사항 발굴 및 보급
- **(활동계획 수립)** 단장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기별 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활동범위 확대)** 구호지원기관 활동, 지역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 참여를 통한 재난 대응 활동 지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참여 등
 -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자율방재단 구호지원기관 지정('18.12월)
- **(홍보강화)** 방재단 전문교육(재난안전교육원 과정시 영상 제작 교육 실시, 전국 단위 활동 사항 영상제작 및 홍보자료 활용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전문성 강화

- (커리큘럼 확대) 코로나19 등 신규재난 대응, 재난발생 추이, 재해구호 교육, 재난별 인명피해 사례 등 교과목 추가
- (교육과정) 담당공무원, 방재단원 대상 신규교육 개설
 - * 지역자율방재단 관리과정(공무원 대상 총 1개 기수 40명)
 - 지역자율방재단 체험과정(방재단 대상 총 15개 기수 500명)
- (직무능력교육) 지역을 보다 세분화하고 교육 인원 확대 추진
- (방재단 자체훈련) 지역 내 위험요인을 반영한 자체훈련(교통통제 등) 실시, 지자체 및 인근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합동 훈련 권장
- (교육방식 다양화) 비대면 콘텐츠 개발, 자체교육에 활용 추진

3. 지역자율방재단 현황 분석

○ 법령·제도 정비

- (지역자율방재단법 제정) 사회재난 활동 확대(의용소방대와 구분), 활동수당 지급, 장비지원, 복무 지도·감독 등 규정
- (활동지원) 지역자율방재단법 제정과 연계하여 활동지원 근거 마련
 - * 법률안 제10조(재난현장출동 등) 제6항,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 무상 대여
- (소집수당) 지자체 조례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보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소집수당 지급 근거 마련('20.6.16. 신설)
- (포상확대) 우수방재단 활동·운영 사례 발굴·공유, 포상 확대 추진
- (위상 재정립) 현장조치 매뉴얼, 지역대책본부 조례 등에 방재단을 자원봉사자와 구분하여 역할 및 임무 등 명시

감사합니다.

